

예술의상에 표현된 Abjection art

차 은 진*(경희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박 미 령 (목포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조교수)

기존의 여성상과 여성성을 고착화 시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해방적 담론을 제시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the abjectoin(대상천시 개념) 이론을 바탕으로 한 Abjectoin art 로 표현된 예술상에 대한 연구이다.

본연구는 the abjectoin 개념이 도입된 예술의상의 표현방법과 성격을 규명하며, 예술의상을 보는 고정화된 시각에서 탈피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예술분야에서 옷, 의상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abjectoin art의 이론적 기초가 된 the abjectoin 이론의 발생 과정과 abjectoin art의 성격을 규명하여, 예술의상에서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bjectoin art 의 이론적 배경을 신체적 ego, 정신 분석학적 개념으로서 자아와 타자의 경계선에 관한 것과 사회적인 금기로 터부시 됐던 저속한 물질로서의 신체에 대한 이론으로 나누어 줄리아 크리스테바

의 <공포의 파워 : power of horror>에서 나오는 the abjectoin (대상천시 개념)으로 설명했다.

또 abjectoin art 의 구체적 표현 방법으로는 배설물과 분비물로 신체를 비천함으로 표현한 신체미술가 '신디 셔먼' 과 '수 윌리엄스' '주리스 베리'의 작품과 경계의 개념으로는 이성애 / 동성애, 예술 / 포르토, 인간 / 양성성과 동물성의 '폴 메카시'와 '메튜 바니' 비디오 매체 미술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장에는 90년대 이후의 제3의 예술 즉 미술과 패션과의 결합인 예술의상을 분석하였다.

예술의상에서 비천함은 혐오스러운 여성성을 묘사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타자인 여성, 어머니로서 소외되었던 여성성을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abjectoin art 로 표현된 예술의상을 통해서 고정화된 시각에서 탈피 새로운 여성상을 의상을 통해 제시하고자하며, 예술 분야에서 옷, 의상의 새로운 위치 창출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